



장수군, 다(多)가치 배움의 날 특강 열어

장수군은 지난 22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공직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다(多)가치 배움의 날 특강을 열었다. 다(多)가치 배움의 날은 사회 각 분야의 명시들을 초청해 장수군 공직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수군의 이면을 명사들의 시선을 통해 들여다보고, 시대의 다양한 가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탐구해보자는 취지에서 2023년 새롭게 기획됐다.

전북CBS 이균형 보도제작국장의 특강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언론의 생태계, 보도자료 작성법, 언론 응대 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이백면, 다문화가정 공예 체험

남원시 이백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원시 가족센터 주관으로 지난 22일, 결혼이민자, 귀화자, 배우자 등 다문화가정 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지원 배우자와 가족의 교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족소통 공유체험, 방향제, LED 조명 등 만들기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과정 중 어려웠던 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한 가족은 “평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소방 협력 가출 치매 노인 신속 구조

정읍경찰서(서장 김학곤)는 소방과 협력하여 신고 4시간 만에 가출 치매 노인(82)을 신속히 구조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52분경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신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형사팀, 신속대응팀 등을 현장에 출동시켜 실종현장 주변을 살피며 수색하였으나 주변에 모두 농가인 텃밭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일몰시간이 가까워져 자칫 실종자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소방에 공조요정하는 한편, 주변 CCTV를 역추적한 끝에 오후 6시 3분경 실종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실종자는 발생현장에서 3km 떨어진 진흙 논으로 떨어져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신속히 119로 후송되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이경태 교수팀, 연구 성과 발표 주목

크립토코스증 조직 침습인자 찾아… 감염 미생물학 분야 우수 국제학술지 게재

전북대학교
이경태 교수팀
(인수공통전염
병 연구소)
이
크립토코스
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호흡
기를 침습해
전신과 뇌로
감염되는데 중
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연세대 반용선 교수 전북대 이경태 교수

이에 따르면 이 교수팀은 연세대 반용선 교수 연구팀 (생명공학과)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균 내의 액포 및 엔도솜 막에 존재하는 V형 ATP 가수분해효소 복합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Rav1이 폐의 세기관지로부터 조

직 안쪽으로 진균이 침습하는 현상과 혈-뇌장벽 통과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이 연구결과는 감염 미생물학 분야의 우수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패소전스(PLOS Pathogens, 분야 상위 9.5%)’에 게재됐다.

이경태 교수는 “이번 연구로 밝혀진 진균의 조직 감염 필수 침습 조절인자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약물 타겟 후보로서 항진균제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호흡기를 통해 전신으로 감염되는 크립토코스증은 연간 15만 명 이상의 면역결핍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진균 감염으로 유발되는 크립토코스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질환으로 폐렴과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우리의 뇌 속까지 균이 침범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백산면, 1년새 인구성장 26% 증가

김제시 백산면(면장 최미화)은 김제시 인구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말 2,468명에서 650명이 늘어난 3,117명으로 2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지난 1월초부터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인근에 G5스테이션1차아파트가 준공되어 390세대 전량이 분양되어 현재 340세대가 전입 완료했으며, 전입인구 중에서도 관외거주 전입자가 50%를 이루고 있어 김제시 인구성장에 백산면이 혼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인구 50명과 출생아 등록은 3건에 그친 반면, 2023년에는 11월 현재 26명의 출생인구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백산면이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백산면 체류지 변경 인구 또한 올 한해에만 읍면지역 총 62명 중 백산면이 27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어 백산면 경제활동성장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가지와 인접한 도농복합형태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백산면은 2024년말 G5스테이션2차아파트 342세대, LH행복주택 12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으며 지평선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경제산업성장기반이 구축되어 인근 지역 원룸 등에 청년층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백산면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백지수표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감사패 전달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2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의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에코리본(ECO Re-Born) 사업을 통해 무주군 전역에 환경보전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의 자랑, 덕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특별시 무주군 전체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리본 사업이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 동력, 자연특별시 무주의 내실을 키워 2024년 무주군의 해를 빛나게 할 자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2년부터 페트병과 폐근무복 등의 물품을 정갑이나 양말 등의 물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에코리본(ECO Re-Born)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ESG 경영 실천에 집중해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김현교 소장은 “에코리본 사업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며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의무감과 자부심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무주군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공단 직원 및



관내 공공서 근무자들의 폐근무복 1만 1천 벌을 수거해 장갑과 양말 등을 제작했으며 이는 지역의 소외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 지역을 확대하고 코로나 시기에 사용했던 투명 아크릴판 등을 수거해 새활용 생산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OPEN-소방서! 체험교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2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OPEN-소방서!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실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학교나 어린이집의 기숙 단위 관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대피법 △소방 유물박물관 등 관람 △방화복 · 웨어 착용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포토존’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OPEN-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운영

무주소방서는 지난 22일 무주여품어린이집(17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들이 소방복을 착용하여 △소화기 사용법 △소방관과 함께하는 방수 체험 △굴절차 탑승 △화재예방 홍보물품 배부 및 기념촬영 등으로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